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김 나 영¹⁾

명문언어심리센터

조 유 진²⁾

인덕대학 사회복지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개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경기, 전라도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대학생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부민감성 질문지, 대인불안 척도, 자기개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t-검증, 단순회귀분석 및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여 대학생 모든 집단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의 예측변인으로, 즉, 거부민감성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개념은 낮을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자기개념은 유의한 수준에서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대인불안, 자기개념, 매개효과

1) 명문언어심리센터 치료놀이사

2) 교신저자 : 인덕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E-mail : cyj@induk.ac.kr)

I. 서론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써 수많은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삶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인간적 연(緣)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독특한 자아를 형성하며 여러 감정을 경험·적응해 간다. 이러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풍요로우면 개인의 경험하는 감정이나 행동 또한 적응적일 수 있는 반면 대인관계 속에서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지속된다면, 결국 대인불안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인불안(Social Anxiety)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다(김남재, 2000). 그 중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빈번히 느끼는 불안은 주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으로부터 평가 당하고 그 결과 무시되거나, 거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권석만, 1995).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인불안은 사회적·평가적 상황 즉,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이성과 이야기 할 때, 권위자와 이야기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 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걱정이나 자기의식, 정서적 고통 등을 나타내며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과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Alden & Crozier, 2001; 정민현, 2003; 이지향, 2006). 이렇듯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크고

작은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는 대인불안은 청년 후기 자신의 정체감과 대인관계 혹은 학업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인불안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인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정서적 온정이 부족하고 거부적이었으며(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lman, 1973), 높은 기대 수준과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허요연, 오강섭, 이시형, 1998)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착유형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대인불안과 관련한 연구들(이지향, 2006; 정민현, 2003; 신노라, 2000)이 진행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은 사회적 예법의 지나친 강조와 아이의 사회화를 고무하지 않는 양육방식 등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적인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일반화 된 두려움으로 이끌게 되어 대인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다(Allaman, Joyce, & Crandell, 1972; Baumrind, 1976). 이처럼 개인의 일생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인불안의 원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된 애착유형(신노라, 2000; 정민현, 2003; 이지향, 2006; 노향희, 2008; 한상희, 2005)과 양육태도(박윤선, 2007; 이순옥, 2007)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변인 중 불안정 애착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부민감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변

인 중 하나인 거부민감성(Reject Sensitivity)과의 관련성을 가정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Feldman & Downey, 1994)을 말한다. 즉 인지적, 정서적 정보 처리상 특징으로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이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기 불안이다. 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수용되고자하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이다(Baumeister & Leary, 1995; McClelland, 1987; Rogers, 1959; Sullivan, 1937).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거부나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데(Downey & Feldman, 1996; Levy, Ayduk & Downey, 2001). 이러한 거부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다른 사람이 사소한 부락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여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다. 즉,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부 경험 이후에 외로움이나 사회불안 혹은 우울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Baldwin, 1994; Cooper, Shaver, & Collins, 1998;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이와 같이 거부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불편감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불안 혹은 대인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로 또 다른 맥락에서 신노라(2004)는 양가 애착 집단의 경우 사회적 자기개념, 자기 효능감, 성격적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을

52.7%를 설명하며, 회피애착의 경우 사회적 자기개념, 신체적 자기개념, 감정적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을 79.7% 설명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순희(2002) 또한 대인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기개념은 36.5%의 설명력을 보여 대인불안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자기개념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Cheek & Buss, 1981; Clark & Arkowitz, 1975; Dodge, Heimberg & Becker, 1988; Leary & Kowalski, 1993)을 통해 입증되어왔다.

이와 같이 대인불안은 거부민감성과 같은 타인과 관련한 특성 뿐 아니라 자기 내적인 갈등과 문제인 자기개념과 같은 변인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부민감성과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기개념이라는 두 변인을 상정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대인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는 가설적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모형에 근거해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작용을 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그리고 불안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로서, 성차를 보고한 연구(이복동, 2000; 김민동, 2003; 김나영, 2003)와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심경원, 2007; 정현주, 2007)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및 대인불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이러한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대인불안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부민감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자기에게서 비롯된 자기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상담환경 내 개인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 탐색을 시도코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 자기개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전라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4년제 대학교 1, 2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상담을 받고 싶은 문제가 대인관계 많다는(고려대학교 학생 생활상담센터 2005; 김수진, 2005; 류진혜, 정은선, 2002)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선정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50부를 회수 하였으며 질문지를 검토한 결과, 응답이 무성의 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남자대학생 229명, 여자 대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총 49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498)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29 (45.39)
	여	269 (54.61)
나이	18~20세	387 (77.71)
	21~23세	88 (17.67)
	24세 이상	23 (4.62)
학년	1학년	236 (47.28)
	2학년	262 (52.72)
전공	인문계열	34 (6.83)
	사회계열	166 (33.33)
	공과계열	174 (34.94)
	사범계열	24 (4.82)
	예체능계열	71 (14.26)
	기타계열	29 (5.82)

2. 측정도구

거부민감성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이복동(2000)에 의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거부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인 초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염려되거나 불안하가의 여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6점의 Likert척도 상에서 평점 한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기대 점수와 불안 정도의 곱 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염려와 거부에 대한 예상 기대에 관한 문항을 나누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불안/ 염려에 관한 Cronbach α 값은 .90이었으며, 거부에 대한 예상 기대에 관한 Cronbach α 값은 .88이었다.

대인불안

대인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척도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 문장이 자신의 특성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 하는 정도를 5점 Likert척도 상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84였다.

자기개념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자기 개념과 자존감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척도로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의 각 소척도별로 각각 5문항씩 총 30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90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선정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집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 지도 교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연구의 취지나 응답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협조를 부탁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조사가 끝난 후 당일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의 남녀대학생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3에서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문제 4에서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먼저 연구문제 1에서 설정한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 및 자기개념의 평균 차이와 기술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 자기개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에 비해 거부민감성, 대인불안은 낮은 반면 자기개념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 변인에 따라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 자기개념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정확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성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문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대학생의 성 변인을 통제한, 즉, 남·여 각각의 대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

표 2.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및 대인불안, 자기개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르는 차이

변 인	남(N=229) M(SD)	여(N=269) M(SD)	t
거부민감성	9.34(2.71)	9.85(2.66)	-2.09*
대인불안	39.48(8.42)	41.15(8.12)	-2.24*
자기개념	109.21(15.16)	105.51(13.77)	2.85***

* $p < .05$, *** $p < .001$

표 3.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준거 변인	예측 변인	β	r^2	F
남(n=229)	대인불안	거부 민감성	.34***	.12	28.60***
여(n=269)	대인불안	거부 민감성	.32***	.10	28.91***

*** $p < .001$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대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r^2=.12$, $F=28.60$, $p<.001$)으로,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beta=.34$, $p<.001$).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도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2=.10$, $F=28.91$, $p<.001$), 즉, 남자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beta=.32$, $p<.001$). 남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전체 설명량은 12%,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전체 설명량은 10%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r^2=.12$, $F=31.54$, $p<.001$)으로, 즉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beta=-.35$, $p<.001$).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도 자기개념이 대인불안($r^2=.21$, $F=71.98$, $p<$

$.001$)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즉, 남자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여자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46$, $p<.001$). 또한 남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개념의 전체 설명량은 12%,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개념의 전체 설명량은 21%로 나타나 자기개념이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연구문제 4에서 설정한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대인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거부민감성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여자대학생의 경우($r=.32$, $p<.001$), 남자 대학생의 경우($r=.34$, $p<.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기개념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도 여자대학생의 경우($r=-.45$, $p<.001$)와 남자대학생의

표 4.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준거 변인	예측 변인	β	r^2	F
남($n=229$)	대인불안	자기개념	-.35***	.12	31.54***
여($n=269$)	대인불안	자기개념	-.46***	.21	71.98***

*** $p<.001$

표 5.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 및 자기개념의 상관관계

	1. 거부민감성	2. 대인불안	3. 자기개념
1		.32***	-.19***
2	.34***		-.45***
3	-.08	-.35***	

*** $p < .001$, 대각선 위: 여자대학생($n=269$), 대각선 밑: 남자대학생($n=229$)

경우($r = -.35, p < .001$) 각각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개념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여자대학생의 경우, 유의한 부적 상관($r = -.19, p < .001$)을 보였지만, 남자대학생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하기위해서는 각 변인이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자기개념과 거부민감성간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반면 여자대학생 집단에서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검증은 남자 대학생을 제외한 여자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봄으로써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가정한 변인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이다. 즉, 먼저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자기개념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을 종속변인인 대인불안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을 투입하여 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위의 같은 절차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를 통해 여자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자기개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인 자기개념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beta = -.19, p < .001$), 2단계의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인인 대

표 6. 여자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β	r^2	F
여(=269)	1단계 (독립변인→매개변인)	거부민감성→자기개념	-.19 ^{***}	.04	9.69 ^{***}
	2단계 (독립변인→종속변인)	거부민감성→대인불안	.32 ^{***}	.10	28.91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1) 거부민감성→대인불안	.24 ^{***}	.26	45.39 ^{***}
		2) 자기개념→대인불안	-.41 ^{***}		

*** $p < .001$

인불안에 미치는 영향($\beta=.32, p<.001$)도 유의하였다. 또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기개념이 종속변인인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beta=.41, p<.001$)이 유의하였으며,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beta=.24, p<.001$),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Z=2.87$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여자대학생의 경우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직접적으로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개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대인불안을 낮추거나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임으로써 두 변인이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을 예측함에 있어 기여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의 1,2학년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대인불안, 자기개념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인불안과 거부민감성은 남자대학생 보다 여자대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념은 남자대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불안과 자기개념의 차

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이복동, 2000; 김민동, 2003)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전체 설명량은 12%,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전체 설명량은 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불안정 애착유형에서 비롯된다는 선행연구(이복동, 2000)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불안정 애착유형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노라, 2000; 정민현, 2003; 이지향, 2006)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의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개념의 전체 설명량은 12%,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개념의 전체 설명량은 21%로 나타나 자기개념이 여자대학생의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신노라(2004)의 연구에서 애착유형별로 대인불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자기개념을 보고한 것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자기개념과 대인불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김순희(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기개념은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대학생 집단에서 거부민감성은 대인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지되었으며, 이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지닌 여자대학생이더라도 자기개념이 높고 긍정적이면 대인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유형을 통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자기개념 중 부정적인 개념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인지(김정호, 조용래, 이민규, 2000; 조용래, 1998; Smoth, Ingram, & Brehm, 1983)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즉,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여자대학생의 경우 거부민감성의 높고 낮음이 자기개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인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거부민감성과 대인불안 그리고 자기개념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자 대학생과 달리 남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간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애착적이며, 여자의 경우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 가치

를 두도록 강화 받는다(Douvan & Adelson, 1996)는 연구결과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고 더 주위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안을 지니고 있고 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김나영, 2003)는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의미 있는 타인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이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남성과는 달리 보다 밀접히 자기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전라도 일부 지역의 4년제 대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국내 전체 1, 2학년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검증한 변인의 하나인 거부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인 실정상 일반화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을 그 문화적 특성에 맞게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한 후속 연구를 시도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간의 상관성이 성립되지 않았다.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을 확보하여 반복 검증해 봄으로써 그 원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의 영향력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거부민감성을 낮추거나 자기개념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또한 실제적인 상담환경에서 개인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치료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학생 생활 상담센터 (2005). 2005년 신입생실태조사. 고려대학교 학생 생활 상담센터.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김나영 (2003).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과 자의식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재 (2000). 대인불안과 사회적 자기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73-483.
- 김남재 (2000).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모형 고찰. *사회과학연구*, 6(23).
- 김민동 (2003). 애착,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5). 2005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 생활상담 연구소*.
- 김순희, 박영호 (2002). 대인불안과 자기초점주의, 자기 개념 및 자기제시책략과의 관계.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5, 37-54.
- 김정호, 조용래, 이민규 (2000). 사회불안과 우울의 자기개념에 대한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
- 노향희 (2008).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 애착의 조절 효과.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혜, 정은선 (2002). 2002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연구. *한양대학교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 박윤선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 애착 유형과 대인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23(4) 949-968.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거부민 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옥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 및 대인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향 (2006). 애착, 대인불안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여대생의 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현 (2002).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 불안의 관계.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효연, 오강섭, 이시형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검사의 개발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9, 19-208.
- Alden, L. E., & Crozier, W. R. (2001).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Chichester*: Wiley.
- Allaman, J. D., Joyce, C. S., & Crandall, V. C. (1972). The antecedents of social disability response tendenc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Child Development*, 43(4), 1135-1160.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Monsma, A., & Brillman, E. L. S. (1983). The role of perceive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hology of phobic disorder: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symptom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Baldwin, M. W. (1994). Primed relational schema as a source of self-evaluative reac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80-40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 211-221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97.
- Dodge, C. S., Hope, D. A., Heimberg, R. G., & Becker, R. E. (1988). Evaluation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with a social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211- 222.
- Downey, G., & Feldman, S. (1996). The imple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logy*, 6, 231-247.
- Leary, M. R. & Kowalski, R. M. (1993). The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Construc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136-146.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Leary, M (Ed),

- Interpersonal Rej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cClelland, D. C. (1987). Human motiv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tcalf, J., & Mischel,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3. pp.184-226)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ips, D. (1996). Conflict o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Smith, T. W., Ingram, R. E., & Brehm S. (1983). Social anxiety, anxious self-preoccupation, and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6-1283.
- Sullivan, H. S. (1937). A note on the implication of psychiatry, the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investigation in the soci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3, 157-16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1차원고접수 : 2009. 07. 07.
수정원고접수 : 2009. 08. 26.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The Meditation Effects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KIM, Na Young

Myung-mun counseling center

CHO, You Jin

Ind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within human relationships. In terms of the impact that university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has on social relations, self-concept was suspected to act as an influencing factor and this was confirmed.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498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and Jeolla provinces. The revised Reject Sensitivity Questionnaire, Interpersonal Anxiety Scale and Self-Concept Scale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t*-test,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Baron and Kenny's test of mediation effec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are predicted to have an influence on social anxiety. In other words, as rejection sensitivity increases and self-concept decreases, social anxiety is likely to increase. Additionally, while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effects that rejection sensitivity has on social anxiety, self-concept is considered as a parameter to cause a link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us, female university student's social anxiety is directly influenced by rejection sensitivity at the same time as self-concept operates indirectly in terms of influence.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reject sensitivity, social anxious, self-concept, the meditation effect